

2016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무용분야 우수작품제작지원 심사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16년도 문예기금 공연예술창작산실 우수작품제작공연지원 무용분야 심의
- 실연심사 일시 및 장소
 - 2016. 5. 12(목)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 2016. 5. 13(금)~14(토)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 선정회의 일시 및 장소 : 2016. 5. 14(토) 오후 7시 대학로예술극장 지하1층 리딩룸

<공연예술 창작산실 우수작품제작지원 무용분야>

2016년도 공연예술 창작산실 우수작품제작지원 무용분야 실연심사는 지난 시범공연 지원 단계의 1,2차 심의를 통과한 총 16건(대극장 5건, 소극장 11건)을 대상으로 3일간 4명의 심사위원이 심의하였다.

실연심사의 심의 절차는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소극장에서 20분 시범공연과 10분 인터뷰 심의를 우수작품제작지원 선정 시 작품 발전 방향에 대한 자유양식의 포트폴리오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진행했다. 실연공연 대상 단체는 무대, 조명, 영상, 음향 등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모두 동일한 조건을 제공받아 시범공연을 상연했다. 우수작품제작 지원인 만큼 작품의 예술성에 큰 비중을 두고 충실성, 수행능력, 단체의 역량과 발전 가능성 등 심의 기준과 내용도 여러 사안별 특성을 고려하여 엄중을 기하였으며 시범공연 실연 심사 후 16건의 작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대극장 2건과 소극장 6건을 우수작품제작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대극장 부문은 지원 단체의 예술적 역량과 작품의 예술성 실현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는데 맹목적인 전통의 해체, 재구성이 아닌 독창성과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작업들을 높이 평가하였다. 소극장 부문은 상대적으로 실험성이 높고 향후 지속적 활동 가능성과 안무가로서의 역량, 예술적 감각 부여로 진실성 있는 작품, 실현가능성에 집중하여 평가하였다.

많은 작품들이 새롭고 참신한 방법론으로 의욕적인 시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한계로 작가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기존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번 심의 시에는 우수작품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앞으로 안무가들의 참신한 발상과 고민으로 새로운 주제 선택과 전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공연단체의 기획력과 수행능력이 잘 조화된 작품들의 지원과 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